



일반부문 최우수작

여우들의 하얀 거탑

MBC <내조의 여왕>과 KBS <개그콘서트> 중 '분장실의 강 선생님'

정미지

화장실과 분장실이 보여주는 뒤편의 사회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서 연봉이 높기로 유명하다는 퀸즈푸드에 들어간 온달수(오지호)가 한준혁(최철호)과 가장 적나라하게 충돌하는 공간은? 바로 화장실이다. 이곳에서 온달수가 태어나 처음으로 입에 발린 소리로 아부를 떨고 정직원이 될 기회를 달라며 타일 위에 무릎을 꿇을 때, 한 부장은 아내를 팔아 안일하게 사는 무능력자라며 온달수를 짓밟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는 역전되어서, 말미에는 끈 떨어진 한준혁을 온달수가 비웃는 상황이 된다. 화장실은 한 건물 속 구성원들이 계급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함께 쓰는 공간인 동시에, 일터라는 무대 뒤편의 공간이다.

공연장의 분장실도 마찬가지다. 무대에서는 주연과 조연이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지만 분장실에선 (특정 배우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는 한) 선후배 할 것 없이 같은 공간을 쓰면서 그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살벌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 무대에서는 비중이 작은 조연이 선배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을 수도 있고, 무대의 주연배우가 모든 후배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 무대 위의 공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없는 위력을 발휘한다.

화장실과 분장실 혹은 복도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메인 공간으로 가기 전 일종의 ‘준비 공간’에서 우리는 딱히 보고 싶지 않은 흉한 풍경들을 끝없이 봐야만 하고 꺾끄러운 관계의 사람과도 불시에 마주쳐야 한다. 마치 김홍석(김창환) 이사의 부인인 오영숙(나영희)이 사장 부인 은수현(선우선)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재수 없다며 치를 떠는 것처럼 말이다. 삶이라는 무대의 뒤편, 질척질척한 부대낌과 몸부림을 블랙 코미디로 담아낸 <내조의 여왕>과 <개그콘서트>의 ‘분장실의 강 선생님’은 절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여 그동안 정극과 개그가 담아내지 못했던 기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퀸즈푸드의 남자 직원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동력은 직원 부인들의 모임인 평강회 회원들의 ‘사모님’ 쟁탈전이고, 강 선생의 분장실은 개그우먼들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천지애(김남주)의 “사모님, 태어나주셔서 감사해요~”와 안영미의 “선배님, 저희 땀 안 그랬잖아요 선배님~”이라는 하이톤의 목소리가 전혀 무관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이 모두가 현대 사회의 여자들의 권력 관계를 꽤 리얼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이톤의 정치’가 TV에 안착하기까지

“니들이 수고가 많다”, “우리 땀 상상을 못 했어, 이것들아” 등 수많은

유행어를 낳고 있는 ‘분장실의 강 선생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대박 코너가 아니다. 그간 군대, 조직폭력배, 직장 등 남자들의 사회생활을 소재로 한 코미디는 넘쳐났던 데 비해 주로 외모 비교로만 이루어졌던 개그우먼들의 개그는 사실 생명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코너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전경미와 강 선생님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소화하는 강유미가 2002년 KBS 위성TV ‘한반도 유머 총집합’으로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공감을 얻는 여성 개그는 짝을 띄우게 되었다. 당시 그들은 매번 다른 상황, 다른 인물로 다양한 콩트를 선보이면서도 유명인을 상대모사하거나 인기 작품의 명장면을 패러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신 여자들의 전화통화에서 상대에 따라 목소리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재연하거나, 배우의 지나치게 연기스러운 연기와 성우 더빙 특유의 억양을 흉내 내면서 사람들의 꾸며진 모습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이 개그 코드는 <개그콘서트>의 ‘예술 속으로 고고’(안영미, 강유미)와 ‘사랑의 카운슬링’(강유미, 유세윤)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특히 후자의 ‘항상 선배처럼 구는 여자’ 편에서 강유미는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야. OO 선배한테 말하면 안 된다”라며 유들유들한 선배를 연기하기도 했고 옷을 팔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하다가 손님이 사지 않자 180도 돌변하는 매장 직원을 연기해보이기도 했다. ‘언니’와 ‘이모’라는 호칭으로 대표되는 한국 여자들만의 위계질서, 교유의 분위기를 그려내는 데 탁월한 이 개그우먼들이 그들의 주특기를 제대로 발휘한 것이 바로 ‘분장실의 강 선생님’이다.

한편 여성 시청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많은 드라마에서는 여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그려져 왔을까. 캔디와 같은 씩씩하고 착한 여주인공을 악녀가 괴롭히는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어왔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약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젊은 나이에 직장 상사인 경우가 많았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유도 단지 질투라는 한정된 감정에 머물렀다. 이 완고한 관습체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겨났는데, SBS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자녀 교육열로 불타는 엄마들의 경쟁을 담으려 시도했으며 SBS <온에어>, KBS <그들의 사는 세상>, MBC <스포츠라이트> 등과 같은 전문직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드라마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업주부가 가족과 남편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매우 디테일하게 구현해냄으로써 따로 직업이 없더라도 결혼을 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내조의 여왕>이 등장했다.

인생사 다홍치마? 요동치는 권력 관계

<내조의 여왕>의 천지애와 고등학교 동창들은 서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더니……. 네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천지애가 다홍치마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권력 관계는 극중 세계에 리얼리티와 긴장감을 부여한다. 일단 권력의 조건 자체도 일정하지 않다. 그 예로 천지애는 고등학생 때 미모와 인기를 기준으로 여왕의 권세를 누렸지만 지금은 백수인 남편 때문에 친구에게 굶신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지애의 처지는 골프장과 피부과, 비싼 미용실에서의 창피, 야유회 때 온달수의 경쟁자보다 훨씬 초라했던 도시락 준비 등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처량하게 묘사된다. 그렇다고 물질만이 권력의 도구인 것은 아니다. 양봉순(이혜영)은 지애보다 훨씬 부유하지만 남편이 여전히 지애를 그리워하자 심리적인

약자가 되어 불안에 떠다. 허태준(윤상현) 사장과 아내 은수현 역시 지애와 달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상대를 위해 명예, 자존심 등 많은 것을 내던질 만큼 매달리는 입장이 된다.

그들 퀸즈푸드 안의 관계는 더욱 심하게 요동친다. 처음에 지애는 오양숙의 마음에 들어 도움을 받지만 가짜 가방을 선물한 것이 들통 나면서 미움을 사고, 그 뒤 남편 달수와 이는 사이라는 은수현을 믿고 의지했던만 그녀는 달수를 유혹하느라 정신이 없다. 김홍석과 오양숙은 은수현과 온달수의 관계를 회장 차에게 폭로하여 온달수가 회사에서 쫓겨나도록 음모를 꾸미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돌연 오른팔이었던 한 부장에게 덮어씌워 그를 잘라내려 한다. 이후 회장이 죽고 온달수가 은수현의 지분을 양도받게 되자 그에게 성공을 보장해주겠다며 자신이 사장이 될 수 있게 밀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는 등 일명 ‘라인’과 동아줄은 쉴 새 없이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한다.

‘분장실의 강 선생님’에서도 등장인물은 겨우 개그우먼 4명뿐이지만 눈치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나를 아끼고 잘해주는 듯하다가도 선배가 오면 태도가 변해버리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온 연예계에 거짓 소문이 나기도 하며 내가 짠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기도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 그곳이 바로 악녀 1명만을 상대로 싸우는 멜로드라마가 아닌 실제 세상이다.

여우들의 거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2년 전,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정치 드라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살벌한 직장세계를 그려냈던 MBC <하얀 거탑>은 <내조의 여왕>과 많은 공통분

모를 갖고 있다. 일단은 산전수전 다 겪고 회사의 막강한 실세로 자리 잡은 인물로 배우 김창완이 두 드라마의 중심축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느긋한 말투 때문에 유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하얀 거탑>에서는 필요에 따라 칼같이 사람을 처내는 우용길 과장 역을 통해 닳고 닳은 사회인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내조의 여왕>의 김홍식도 비슷한 캐릭터이지만 부인의 말에 유난히 약한 남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영숙 여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녀 역시 부드럽고 우아한 외모와 목소리와는 상반되게 시시각각 냉정하게 돌변하며 ‘사모님’의 야망을 드러냈다.

자신의 직업이 아닌 남편의 자리를 이용한 야망은 지금껏 사극에서나 많이 볼 수 있었던 소재이지만, <내조의 여왕>에서는 현대 사회 속 부인들의 욕망과 내조의 형태를 다양하게 엿볼 수 있다. 오영숙처럼 내조의 능력이 뛰어나고 지위를 충분히 누리는 경우, 양봉순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정작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 은수현과 천지애처럼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시집의 구박을 받는 경우, 하 대리의 부인처럼 성격이 내성적이라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등. 이처럼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사모님’ 판타지가 얼마나 여자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준다.

물론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도 <하얀 거탑>의 그것과 많이 겹친다. 크고 작은 경조사 참여, 이부와 비위 맞추기, 술자리에서의 낯 뜨거운 재롱, 미술 작품 선물, 뒷돈과 술수 등. 특히 은수현에 이어 갤러리를 맡게 된 오영숙이 곧 죽을 화백의 그림이라 가격이 뿔 것이라며 주주 이사 부인들에게 그림을 돌리는 장면은 가히 ‘미술 재테크’라 할 만하다. 그러나 남자들의 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쇼핑과 다이어트일 것이다. 부인들이 나오는 장면이 대부분 백화점과 헬스장에서 이뤄질 정도로 쇼핑 취향이 비슷한

것이 중요하고, 단지 몸매 관리를 못하는 것만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분장실의 강선생’의 선후배 관계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내조의 여왕>과 달리 따로 직업을 갖고 있고,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연기하는 외향적인 직업이다. 그 무대 뒤편에서 그녀들은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 선배에게 연기도 배우고 줄이 닿으면 협찬도 받고 CF도 찍으면서 어떻게든 자기 길을 잘 닦아 나가야만 한다. 비록 분장실의 인물들이 연예인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지만 나이와는 별개로 몇 기인지 기수를 따지는 문화에서 오는 갈등이나 자기 때는 훨씬 힘들었다고 부풀려서 말하는 허풍, 재밌지도 않은 말에 과장해서 웃는 모습, 선배 앞에서 울면서 피해자인 척하는 것까지 여자 선후배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진풍경을 집대성해놓은 듯하다.

<하얀 거탑>의 장준혁과 <내조의 여왕>의 한 부장이 그랬듯, 남자들이 자신을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이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식의 집단문화에 짓눌려왔다면 여자들은 또 다른 문화를 겪으며 산다. ‘넘버 퍼이브’ 아니면 안 뿌리는 선배에게 알아서 맞춰주는 준비성도 필요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모님에게는 슬퍼 보일 수 있도록 화장할 줄 아는 기술은 금상첨화다. 오영숙이 천지애가 남다른 센스가 있어서 좋다고 한 것처럼, 충성도라는 단어보다는 센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게 여자들의 사회이다.

결국은 이 사회의 ‘사회성’에 던지는 질문

서울대 출신의 멘사 회원인 온달수가 들어간 직장마다 족족 쫓겨났던 이유는 그가 너무 바른 말만 했기 때문이었다. 상사에게 여직원 성추행하지 말라고 하고 공공 횡령하지 말라고 하는 말단 직원이니 늘 얼마 못 가

해고될 수밖에. 그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고수하면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 땅에서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능력과 눈치, 그리고 때로는 비양심적인 행위까지 필요로 하는가. 단순히 부드러운 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요령 정도가 아니라, 온몸과 자존심을 던져야만 하는 것이 사회적인 행동이자 내조이자 개념 있는 선후배가 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조의 여왕>에서 퀸즈푸드 건물은 항상 심한 로우 앵글로 아주 높아 보이게 카메라에 잡힌다.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이 오르고 싶어 하는 정상, 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연봉 높은 대기업 퀸즈푸드이기 때문이다. 남자가 아닌 여우들이 속닥대는 거탑의 세계, 그들만의 센스를 경쟁하는 전쟁터는 코미디라는 장르와 썩 잘 어울려 세련된 현실 풍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여성들의 사회 묘사가 여성뿐만이 아닌 모든 성별, 연령대를 아울러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세상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성을 요구한다는 반증일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공감대 형성을 이뤄낸 두 작품에 박수를 보내며, 다만 우리 모두 그 사회성에 너무 자신의 인격을 남김없이 희생시키지는 말기를. 처음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원했던 천지애와 온달수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불행해졌던 것처럼,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행동들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라본다.



학생부문 최우수작